

한 · 일 동물 속담 대조 연구

-여우를 소재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한 탁 철*

(e-mail : tchan@tu.ac.kr)

< 목 차 >

- | | |
|---------------------|----------------------|
| 1. 서론 | 3.3 도술 · 둔감에 관련된 속담 |
| 2. 양국의 여우의 이미지 | 3.4 간사 · 교활함에 관련된 속담 |
| 3. 양국의 여우 속담 분류 | 3.5 신체 일부에 관련된 속담 |
| 3.1 길흉에 관련된 속담 | 3.6 그 외의 비유속담 |
| 3.2 행동 · 습성에 관련된 속담 | 4. 결론 |

キーワード : ことわざ(Proverbs), 狐(fox), 對照研究(Comparative study), イメージ(image), 比喩(figure of speech)

1. 서론

다른 나라의 언어를 습득할 때 그 나라의 언어적인 요소의 학습뿐만 아니라 그 민족이 지닌 행동양식, 습관, 사고방식 혹은 가치관 등 문화적인 요소의 학습도 중요한 점이다. 오랜 세월동안 민중들 사이에서 사용되고 전해져 내려온 속담에는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문화적인 특징이 잘 반영되어 있어서 언어 학습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문화도 함께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라고 생각된다. 한 · 일 양국은 지리적으로도 가깝고, 문화적으로도 유불사상을 기본으로 한 漢文化의 동일 문화권의 국가로서 上代 이후 빈번한 문화적 교류를 이루어 왔다.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문화적 산물이라고 여겨지는 속담을 매개로 양국의

* 동명대학교 일본학과 부교수

속담을 비교하여 유사점과 차이점을 찾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국의 속담은 상당수 존재한다. 많은 소재가 사용되어 의미내용이나 표현형식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양국의 속담 가운데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에 초점을 두어 연구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동물을 소재로 한 속담에는 그 동물의 습성, 모습, 행동양식 등이 비유적으로 상징화되어 단순한 소재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한·일 양국의 동물속담 중에서 여우가 소재로 쓰인 속담을 추출하여 대조를 통하여 양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해 보고, 나아가 문화적 차이를 고찰해 보는 것에 있다.

여우는 오래전부터 민간설화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우 『삼국유사』, 『삼국사기』, 『고려사』에서부터 현대의 「전설의 고향」에 이르기까지 여우를 소재로 한 이야기들이 많이 전해져 오고 있지만, 대체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하다¹⁾. 한편 일본의 경우 『風土記』, 『日本書紀』, 『日本靈異記』로부터 현대의 小學校 교재에 실려 있는 「ごんぎつね」, 「はないっばいになあれ!」의 이야기와 같이 좋고 나쁜 이중적인 이미지가 공존 하는 것 같다. 이처럼 양국의 옛 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일 양국의 속담 연구 가운데 여우를 대상으로 연구한 사례를 거의 찾아 볼 수 없어 본고에서는 여우를 대상으로 양국의 속담을 연구 하고자 한다.

본 연구 방법으로는 여우를 소재로 한 한국의 속담 용례는 『동물속담사전』 (1997, 宋在旋, 東文選)에서 73례를 추출하였고, 일본의 속담 용례는 『動植物ことわざ辭典』 (1997, 高橋秀治, 東京堂出版)에서 42례를 추출하였다²⁾. 이 용례들을 중심으로 양국의 여우를 소재로 한 속담을 다음과 같이 6가지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고자 한다.

1) 송교(2014) 「한·중 고전 문학에 전승된 여우 이야기 연구」 pp.19-20 한국의 고전문헌에 나타난 여우 분포에서 善11, 惡150, 中立40으로 분류하여 압도적으로 악한 여우의 이미지가 많다고 밝히고 있다.

2) 양국에는 많은 종류의 속담 사전이 있으나 일반적인 속담 사전에서는 여우와 관련된 속담의 용례가 적었다. 예를 들면 李基文의 『俗談辭典』에서도 여우가 등장하는 속담은 8례 밖에 나타나지 않았다.

한국의 속담 73용례 중, 「여우같은 계집이다./여우같은 년이다.」,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저 살던 언덕 쪽으로 돌린다./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제 굴 쪽으로 돌린다.」, 「여우를 피하니까 범을 만난다./여우를 피하니까 이리를 만난다.」,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여우 죽은 데 토끼가 눈물 흘린다.」의 용례처럼 의미가 중복되는 속담이 8례가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42례 중 「同じ穴の狐/一つ穴の狐」, 「狐死して兎悲しむ/狐烹らるる時は兎これを悲しむ」와 같이 4례가 나타났다.

- 첫째, 길흉에 관련된 속담.
- 둘째, 행동·습성에 관련된 속담.
- 셋째, 도술 및 둔갑에 관련된 속담.
- 넷째, 간사·교활함에 관련된 속담.
- 다섯째, 신체 일부에 관련된 속담.
- 여섯째, 그 외의 비유속담.

양국의 속담연구 가운데 동물을 소재로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한탁철(1999)은 한국과 일본의 속담에 나타난 동물의 빈도수를 조사하였는데, 속담 속의 동물은 단순한 소재 이상의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주로 일상생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동물들이 속담의 소재로 사용되는 빈도가 높다고 밝히고 있으며, 앞으로 속담 속의 동물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관한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향후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정유지(2004)는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두 동물의 특성을 분류하여 그와 관련된 속담들의 비교분석을 통해 한일 양국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밝혀 양국 문화의 차이를 고찰하였다. 최미영(2006)은 한국과 일본의 동물 관련 속담 중에서도 12지 동물을 중심으로 비교분석하였는데, 그밖에 자주 등장하는 고양이, 너구리, 여우를 추가하여 표현상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살펴보았다. 또한 속담의 고찰을 의미면과 형식면으로 나누어서 속담의 특성에 관해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동물과 관련된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동물의 상징성에 관한 연구, 12지 동물연구, 개, 고양이, 소 등의 한일 비교 연구가 있는데, 이에 본 연구는 양국의 속담 대조 연구 가운데 여우를 소재로 한 대조 연구는 아직 희박하여 충분한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생각된다.

2. 한·일 양국의 여우에 대한 이미지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포유동물로서 오래전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민간설화나 전설, 동화 속에 자주 등장하는 동물이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여우의 이미

지는 대체로 교활, 영악함 등을 나타내는 부정적인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 여우와 관련 있는 이미지는 음흉, 교활, 무덤, 구미호, 둔갑, 여자 등과 같은 단어들로 연상된다. 일본의 경우 여우의 이미지는 대체로 眼が細い(눈이 가늘다), コンコンと鳴く(캥캥하고 운다), 油揚げが好き(유부를 좋아한다), 人を化かす(사람을 홀린다), ずる賢い(교활하다)³⁾ 등과 같은 이미지가 묘사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양국의 일반적인 인식에서 볼 때 여우는 마이너스적인 이미지가 나타나는 동물이라 할 수 있다.

한·일양국의 여우가 문헌에 나타난 이미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한국과 일본의 여우 이미지

한국	일본
<p>① 여우는 우리 민족에게 둔갑하는 동물로 알려져 있다. ~생략~ 그만큼 여우는 우리 민족에게 요물이자 둔갑하는 존재로 경계의 대상이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여우는 부정적인 존재로 여긴 것 같다. 『고려사』에서도 흉조를 알리는 여우가 등장한다⁴⁾.</p> <p>② 동물이 나이가 들면 사람이거나 탄 짐승으로 화하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여우가 백년이 되면 백발노인으로 변할 수가 있으며, 미녀·老僧으로 변해서 나타나는 민담이 있는 것도 그러한 잠재의식이 있기 때문이다⁵⁾.</p>	<p>① 狐は人をだますと考えられ、「狐につままれる」という言葉ができた。狐は、靈的なものとして珍重され、やがては靈狐として稻荷大神のお使いという信仰が成立する。『倭名類聚鈔』に、「狐はよく妖怪となり、百歳になると化けて女となる」由が記されている⁶⁾.</p> <p>② 古來、人をだますと称され、また稻荷の使いなどといわれる⁷⁾.</p> <p>③ わが國の狐には、何かに化けて、人をだますもののほかに、人に憑くものがあった。狐を憑けられると、一種の精神病のように、異常な症状をあらわす⁸⁾.</p>

이상과 같이 문헌에 나타난 여우의 이미지를 간략히 살펴 본 결과, 한·일

3)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

4) 김중대(2001)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pp.277-278

5) 임동권(1989) 『韓國民俗文化論』 p.248

6) 国文学編輯部(1995) 『古典文学動物誌』 p.14

7) 西村在我(1985) 『川柳動物誌』 p.35

8) 大島建彦ら(1982) 『日本を知る事典』 p.598

양국에 있어 여우는 요물, 둔갑하는 동물, 사람을 속이거나 병들게 하는 등 부정적인 이미지가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한편, 일본에서는 여우가 영적인 동물로서 稻荷大神(벼신)의 使者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것을 볼 때 적어도 일본에서의 여우에 대한 이미지는 부정적인 면과 긍정적인 면 즉, 양면적인 이미지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일본보다 한국의 경우가 여우에 대한 이미지는 훨씬 더 부정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여우의 이미지가 양국의 속담 속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속담 분류를 통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3. 양국의 여우 속담 분류

3.1 길흉에 관련된 속담

3.1.1 울음

한국 속담

- K1 밤에 여우가 울면 불길하다.
- K2 북쪽에서 여우가 울면 그 동네에 초상이 난다.
- K3 앞산에서 여우가 울면 부음이 오고, 뒷산에서 울면 동네 초상이 난다.
- K4 여우가 동네를 향해서 울면 그 동네 초상이 난다.
- K5 여우가 동쪽에서 울면 서쪽에서 초상이 난다.
- K6 여우가 북쪽에서 울면 그 동네 초상이 난다.
- K7 여우가 몹시 울면 초상이 난다.
- K8 여우가 심하게 울면 줄초상 난다.

일본 속담

- J1 月夜狐は打っても鳴かせ。(달밤의 여우는 때려서라도 울려라.)

여우의 울음과 관련된 속담의 경우 한국은 8례가 나타났으나 일본은 1례만 나타났다. 여우의 울음은 양국의 속담에서 정반대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는 흉조(죽음, 부음)를 나타내는 반면, 일본에서는 달밤의

여우울음 소리는 길조를 나타내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김홍겸(2011)은 “우리나라 민간에서 여우의 울음은 죽음을 의미하여, -중간 생략-, 죽음이 가까운 곳에서 일어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여우는 사람이 어서 죽어서 산에 묻히라는 死神과 같은 구실을 하는데, 이것은 북쪽이 공동묘지가 있는 北邙山을 상징하고, 또한 여우는 무덤을 파서 송장을 먹는다는 관념으로 인해, 결국 여우의 울음은 죽음을 알리는 소리로, 여우의 출현은 저승사자의 출현으로 인식되어진 것이다.” 와 같이 한국에서는 여우의 울음소리는 죽음을 상징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K1의 경우에도 죽음, 즉 초상을 예고하는 표현의 속담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J1처럼 달밤에 여우의 울음소리를 들으면 좋은 일이 생긴다는 俗信이 있어 때려서라도 여우를 울게 하라는 속담에서 알 수 있듯이 여우울음은 한국과는 달리 길조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여우의 울음소리는 양국의 속담에 있어서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3.1.2 불운

한국 속담

- K1 길 가다가 여우를 보면 재수가 없다.
- K2 가는 길목을 여우가 지나가면 재수가 없다.
- K3 여우가 길을 건너가면 재수가 없다.
- K4 여우가 묘를 파면 자손이 발복 못한다.
- K5 금정(金井)⁹⁾을 놓았더니 여우가 지나간다.

여우가 불운과 관련 있는 한국 속담의 경우 5례가 나타났으나 일본의 속담에는 예가 나타나지 않았다. K1, 2, 3에서 여우는 방정맞고 교활한 짐승으로 인식되어 여우를 보거나 하면 그날 재수가 없을 징조라는 뜻을 나타내는 속담으로, 한국인의 여우에 대한 이미지는 재수 없는 대표적인 동물로 여겨지는 듯하다. K4의 경우, 여우가 무덤을 파면 그 자손들이 번영하지 못한다는(재수가 없음) 뜻이며, K5의 경우, 애써서 한 일이 낭패가 되었다는 뜻으로, 재수가 없음을 나타내고 있다. K4, 5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에서는 여우와 무덤은 서로

9) 무덤을 팔 때, 구덩이의 길이와 너비를 정하는 데 쓰이는 나무들.

떨 수 없는 연관성이 있는데 이는 아마 구미호¹⁰⁾의 영향이 아닐까 싶다. 김종대(2001)는 “그런데 왜 여우는 사람들에게 대접받지 못하고 나쁜 이미지를 갖게 되었을까? 아마도 여우의 생태적인 측면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다. 여우는 굴에서 살지만 스스로 굴을 만들지 않고 오소리 등이 만든 굴을 빼앗아 보금자리로 삼는다. 더구나 여우의 보금자리가 대개 공동묘지 주위였기 때문에 부정적인 존재로 여겨진 것 같다.” 라고 논하고 있는데, 사실 한국의 설화나 전설에서 보면 여우가 등장하는 배경은 주로 무덤이나 사람의 인적이 드문 산속이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 한편 김홍겸(2011)은 “일본에서도 추수 후 먹을 것을 찾아 논밭을 헤매는 여우를 보고 농부들이 농토를 지키는 신의 사자 또는 끝까지 농사를 돌보는 신의 사자로 인식하면서, 해마다 오곡의 신 우카노미타 마노카미(倉稻魂神)에게 제사하는 이나리(稻荷)의 使者 또는 그 신체로 여기고, 음력 2월초 오일(午日)에 이나리 마즈리(稻荷祭)라고 하여 작은 여우 사당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다.” 이처럼 여우의 생태적 관찰에 있어서도 한·일 양국의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한국에서는 죽음의 사자로 인식되어 지는 반면, 일본에서는 稻荷大神(벼신)의 사자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양국의 속담 중 길흉을 나타내는 의미를 분류한 결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나는 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한국 속담의 경우 여우의 울음소리는 죽음과 관련이 있어 여우는 죽음의 사자로 인식되어 재수 없는 이미지의 대표적인 동물로 여겨지는 반면, 일본 속담의 경우 여우의 울음소리는 좋은 일이 생기는 징조로 여겼으며 재수의 유무에 관한 속담의 예는 찾아볼 수 없었다.

3.2 행동 및 습성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 K1 여우는 씹은 고기를 좋아한다.
- K2 여우는 오줌 때문에 사냥개에게 죽는다.

10) 신혜숙(2012) 「日·韓のにまつわる妖怪表現研究」 p.48 「韓國には長い年月を経て尾が九つに分かれ、自由自在に身を変えることで人間を化かす「クミホ」(구미호 [九尾의狐])の話が伝えられるが、悪賢い「ヨウ」が長い歳月生きると人間の次元にまで到達するうえ、他のものに化ける術まで扱う悪鬼になると考えられるなど、韓國の「クミホ」は妖怪としての認識が強い。」

- K3 여우 꿈에는 닭만 보인다.
 K4 여우에게 닭장을 맡긴 격이다.
 K5 여우 오줌 싸듯 한다.
 K6 여우 잠을 잔다.
 K7 여우는 굴을 파다가는 또 메운다.
 K8 여우 굴에는 문이 둘이다.
 K9 여우는 자면서도 닭 생각만 한다.

일본 속담

- J1 師走狐。(12월의 여우.)
 J2 狐は百里續く國ならでは棲まず。(여우는 광대한 토지가 아니면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
 J3 狐の河原走り。(여우의 강가 달리기.)
 J4 狐捕るなら油揚げで。(여우를 잡으려면 유부로.)
 J5 狐に赤小豆飯。(여우에게 팥밥.)

K1, 3, 4, 9와 J4, 5는 양국에 있어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의 차이점을 엿 볼 수 있는 부분이다. 한국의 여우는 썩은 고기, 닭을 좋아하며 일본의 여우는 유부, 팥밥을 좋아한다는 양 민족의 여우의 음식 습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점을 엿볼 수 있다. K1은 여우는 썩은 고기를 좋아하기 때문에 무덤에 굴을 파고 송장도 파먹는다는 뜻과, 탐관오리는 뇌물을 좋아한다는 뜻이 있다. K3의 의미는 항상 염두에 두고 있는 일은 꿈에도 잘 나타난다는 뜻이며, K4는 못 믿을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 실패하게 된다는 뜻이다. J4의 의미는 어떤 대상을 포획하려면, 그 대상이 좋아하는 물건(사물)을 이용하라는 뜻이고, J5는 과오를 범하기 쉬운 상황을 비유한 표현이다. J1은 음력 12월경이 되면 여우는 먹이를 찾아서 人家 근처로 와서 우는 습성을 비유하여 나타낸 표현이다. J2는 여우의 습성 및 행동반경을 나타낸 의미로서 여우는 광대한 토지가 아니면 정착해서 살지 않는다는 뜻이다. J3은 여우가 무턱대고 강가를 질주하듯이 차분하지 않은 모습의 비유로서 의미도 모르고 무턱대고 책을 읽는 것에 비유한 표현이다. K5, 6은 여우의 생리현상을 나타낸 말로서 K5는 여우는 가면서 오줌을 자주 누기 때문에 사냥개의 추격을 받아 죽게 되듯이, 범죄자가 흔적을 남기면 붙잡히게 된다는 뜻이다. K6은 여우처럼 잠을 오래 자지 않고 잠깐 동안 자는 사

람을 비유한 말이다. K7은 무슨 일을 했다가는 금방 파괴한다는 뜻으로 변덕스러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K8은 여우 굴에 드나드는 문은 둘이 있듯이, 무슨 일이나 예비가 있어야 안전하다는 뜻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한다는 뜻이다. K9는 항상 생각하는 것은 꿈에도 보게 된다는 말로 무슨 일을 정신적으로 애를 쓴다는 뜻이다.

한·일 공통의 속담

K1 여우가 굴을 막으면 비가 온다.

K2 여우는 비 오기 전에 문을 막는다.

J1 狐は雨の降る前に穴を塞ぐ。(여우는 비 오기 전에 구멍을 막는다.)

K1, 2와 J1은 같은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동물이 본능에 의해 기후변화를 예지하여, 사전의 재앙을 未然에 방지한다는 뜻으로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 대비를 한다는 의미이다.

K3 여우는 의심이 많아서 묻은 것도 다시 파본다.

J2 狐之を埋めて狐之をあばく。(여우는 의심이 많아서 묻은 것도 다시 파본다.)

K3과 J2는 여우는 본래 의심이 많기 때문에, 음식물을 땅속에 묻어 감춘 뒤 그것을 다시 파내어 버린다는 뜻으로 의심이 너무 많아 자신의 일을 망쳐버리는 일에 비유한 것이다.

K4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저 살던 언덕 쪽으로 돌린다.

K5 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제 굴 쪽으로 돌린다.

J3 狐死して丘に首す。(여우도 죽을 때는 머리를 저 살던 언덕 쪽으로 돌린다.)

K4, 5와 J3는 중국의 『禮記』와 『楚辭』에 있는 이야기로 「首丘」라고도 한다. 여우는 언덕의 굴속에 살기 때문에 죽을 때는 머리를 자기가 살던 언덕 쪽으로 향하여 죽는 것에 비유하여 禮를 잊지 않음을 나타내며 또 다른 의미로서는 고향을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비유표현이다.

- K6 한 굴에 든 여우다.
 J4 同じ穴の狐。(같은 굴의 여우.)
 J5 一つ穴の狐。(한 굴의 여우.)

K6과 J4, 5는 양국 모두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나 나타내는 의미는 서로 다르게 사용 되고 있는 것 같다. K7의 경우, 한 굴에 암 여우가 두 마리 있으면 싸움이 잦듯이, 한 집에 두 씨앗이 살면 싸움이 잦아진다는 뜻으로 사용된다. J4, 5의 경우에는 같은 무리를 나타내는 뜻으로 사용되어 지는데, 특히 나쁜 무리(악당)를 나타내는 점에서 서로 다른 비유로 이용되고 있다.

여우의 행동 및 습성을 나타내는 속담의 의미를 분류한 결과, 양국 모두 여우의 본능적인 생활, 행동, 습성 등이 잘 나타나 있다. 기후변화를 예지하여 재앙을 방지하며, 자기가 잡은 동물의 고기를 일단 땅 속에 묻어 뒀다가 다시 파내서 먹는 식생활 습성의 모습을 관찰하여 속담 속에 잘 활용하고 있는 점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우가 좋아하는 음식으로 한국은 썩은 고기와 닭, 일본은 유부와 팔밥이라는 차이점도 엿볼 수 있었다.

3.3 도술 · 둔갑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 K1 여우가 백년을 묵으면 도술을 한다.
 K2 여우도 천년 묵으면 둔갑한다.
 K3 여우는 하루 일곱 번 둔갑한다.

일본 속담

- J1 狐と狸の化かし合い。(여우와 너구리의 서로 속이기.)
 J2 狐と狸。(여우와 너구리.)
 J3 狐七化け、狸は八化け。(여우 일곱 번 둔갑, 너구리 여덟 번 둔갑.)
 J4 狐憑きが御祈禱に合ったよう。(여우한테 홀린 사람이 기도의식을 만난 것 같다.)
 J5 狐が人にだまされる。(여우가 사람에게 속다.)
 J6 狐が落ちる。(여우에게 홀린 병이 낫다.)
 J7 狐憑きに外郎を飲ます。(여우한테 홀린 사람에게 담약을 마시게 한다.)
 J8 狐の離れた阿保のよう。(여우의 병의가 떨어진 바보와 같다.)

K1, 2, 3과 J1, 2, 3은 여우가 오랜 세월이 지나면 둔갑 내지는 도술을 하여 사람을 속이거나 현혹시키는 동물로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온 것 같다. 한국과는 다르게 일본에서는 여우와 더불어 너구리도 도술 및 둔갑하는 동물로 나타나고 있다.

신혜숙(2012)은 “動物が化けた妖怪の中で「狐」と「狸」は、江戸時代妖怪の代表といえる。「狐」と「狸」は説話の中によくペアで登場する動物妖怪の仲間である。” 이와 같이 여우와 너구리는 도술 및 둔갑하는 대표적인 동물인 듯하다. K1과 J4, 5, 6, 7, 8은 여우가 둔갑하여 사람을 홀리거나 속이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憑き物¹¹⁾, 狐憑き¹²⁾에 관련된 속담이 한국에 비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J4는 의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가 정상적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나타낸다. J5는 언제나 속이는 사람이 반대로 속임을 당한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J6은 여우에게 홀린 병이 낫다는 뜻이다. J7은 여우에게 홀린 사람에게 담 약을 먹게 하면 몹시 지절인 후에 쾌유하는 것처럼 말수가 많은 것을 나타내는 비유표현이다. J8은 여우에게 홀린 것처럼 멍하게 있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이다.

한·일 공통의 속담

K1 여우에게 홀렸다.

J1 狐につままれる。(여우에게 홀리다.)

K1과 J1은 마치 여우에게 홀린 것처럼 뭐가 뭔지 이미도 모른 채 멍하니 있는 모습의 비유이다.

여우의 도술·둔갑을 나타내는 속담의 의미를 분류한 결과, 한국보다 일본의 속담에서 더 많은 예를 찾아 볼 수 있었으며 한일 양국 모두 여우의 이미지는 도술을 하여 사람을 홀리거나 병들게 하는 동물로 묘사되고 있다. 특히 일본 속담에서는 여우와 더불어 너구리도 둔갑하는 동물로 나타나는 점이 한국 속담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다.

11) 전계서 大島建彦ら(1982) p.598 「さまざまな靈の中で、人間にとり憑いて、實害をもたらすもの。」

12) 전계서 大島建彦ら(1982) p.598 「わが國の狐には、何かに化けて、人をだますもののほかに、人に憑くものがあった。」

3.4 간사 · 교활함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 K1 계집은 늙으면 여우된다.
- K2 꼬리 아홉 달린 여우다.
- K3 늙은 여우는 뒷에 안 걸린다.
- K4 늙은 여우다.
- K5 여우가 늙으면 꼬만 남는다.
- K6 여우가 되었다.
- K7 여우같은 계집이다.
- K8 여우같은 년이다.
- K9 여우는 뒷에 두 번 치이지 않는다.
- K10 여우는 여우다.
- K11 여우는 한번 놀란 길은 가지 않는다.
- K12 여우처럼 간사만 떤다.
- K13 여우하고는 살아도 곰하고는 못 산다.
- K14 여우보다 소가 낫다.
- K15 의심 많기는 여우다.
- K16 토끼 뒷에 여우가 걸린다.
- K17 여우도 봉사는 못 속인다.

일본 속담

- J1 狐と鼬は人の眉毛を數える。(여우와 족제비는 사람의 속셈을 읽는다.)
- J2 狐が説教する時は、鶯鳥に氣をつけよ。(여우가 설교할 때는, 거위에 주의하라.)

K1은 여자는 늙으면 여우처럼 간사스럽게 된다는 뜻이다. K2는 상상 속의 여우로 오래 묵어 꼬리가 아홉 개나 달린 체 자유자재로 둔갑하여 사람을 홀리듯이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K3은 늙은 여우는 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위험한 뒷에는 걸리지 않듯이, 늙으면 아는 것이 많아서 실수를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K4, 5, 6은 (늙은) 여우처럼 매우 교활한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K7, 8은 교활한 여우처럼 간사스러운 여자를 야유 또는 욕하는 말이다. K9, 11은 교활한 여우가 두 번의 실수는 없듯이 한 번 실수한 사람은

다시 그 일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에 비유한 표현이다. K10은 여우가 다른 동물로 변할 수는 없듯이 본성은 고칠 수가 없다는 비유이다. K12는 믿음성이 없어 간사스러운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K13은 여우같이 간사스러워도 잘 웃고 애교 있는 여자하고는 살아도, 곰처럼 미련하고 답답한 여자하고는 못산다는 뜻이다. K14는 여우같이 변덕스러운 사람은 못 믿어도 소같이 고집 있는 사람은 믿을 수 있다는 뜻이다. K15는 여우처럼 남을 못 믿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K16은 여우는 본래 교활하여 덫에 잘 걸리지 않는 동물이나 토끼를 잡으려고 놓은 덫에 여우가 걸렸다는 의미로서 본래의 계획보다 의외로 더 큰 이득을 얻게 되었다는 뜻이다. K17은 여우는 교활해서 사람도 잘 속이지만 봉사는 점을 치기 때문에 속이지 못하듯이 꾀만 가지고 누구나 다 속일 수는 없다는 뜻이다. J1은 사람의 마음을 읽어 본심을 찢어 뚫는다는 뜻으로 여우와 족제비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다. J2는 여우가 설교하듯이 착실한 얼굴을 하고 있을 때는 오히려 위험하니까 거위가 잡아먹히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뜻으로 악한 사람이 성실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는 뭔가 저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주의하라는 비유이다.

여우의 간사·교활함을 나타내는 속담은 한국의 경우 17례, 일본의 경우 2례가 나타났다. 한국에서 여우는 간사하고 교활함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동물로 이미지가 인식된 탓에 일본에 비해 한국이 압도적으로 많은 속담이 추출되었다. 특히 여우는 여성을 상징하는 동물로 한국 속담에서 여성에 비유되어 많이 나타났는데 거의 대부분이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속담이 많았다.

3.5 신체의 일부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 K1 봄바람에 여우 눈물 흘린다.
- K2 여우 가죽은 피물전으로 가게 마련이다.
- K3 여우 겨드랑이 가죽이다.
- K4 여우 낮쪽에 분칠한 것 같다.
- K5 여우에게 여우 가죽을 사자는 격이다
- K6 여우 털 옷 한 벌을 삼십 년 입는다.
- K7 여우 꼬리를 잡아야 잡은 것이다.

- K8 여우가 물을 건너뛰어도 꼬리는 젖는다.
 K9 여우도 눈물 흘릴 날이 있다.
 K10 여우는 꼬리가 크고, 여자는 혀가 크다.
 K11 여우는 꼬리보고 잡는다.

일본 속담

- J1 狐その尾を濡らす。(여우 꼬리를 적시다.)
 J2 狐裘蒙戎。(여우모피 옷이 난잡한 모양.)
 J3 狐裘やぶるといえども補うに黃狗の皮をもってすべからず。(여우모피 옷이 오래되어 낡아도 갈색의 개의 모피로는 만들 수 없다.)
 J4 狐の子は面白。(여우 새끼의 흰 얼굴.)
 J5 狐の面から細物を取る。(여우 얼굴에서 가는 부분을 얻다.)

K1, 9은 역설적인 비유표현으로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모피(毛皮)는 보온효과가 뛰어나 방한용으로 애용되었다. 옛날에는 호구(狐裘)라 하여 여우가죽으로 갓옷을 만들었는데 다른 동물의 가죽으로 만든 갓옷보다 높이 쳤다. 이러한 털을 가진 여우마저 눈물을 흘릴 정도로 봄바람이 몹시 차다는 것이다. 그리고 몸에 털이 많은 여우도 혹한에는 추워서 울 때가 있듯이 부유한 사람도 때로는 경제적으로 곤란해질 때가 있다는 뜻의 비유표현이다. K2는 여우 가죽은 피물전에서 팔리듯이 상품을 상점에서 팔린다는 뜻이다. K3은 여우 가죽 중에서 여우겨드랑이 가죽이 귀하고 가장 좋듯이 매우 소중한 물건이라는 말을 나타낸다. K4는 얼굴에 보기 싫게 화장을 한 여자를 비유하는 말이다. K5는 자기를 해치려는 사람과 친할 사람은 없다는 뜻과 이해관계도 없는 일에 남을 위하여 희생할 사람은 없다는 뜻이 있다. K6은 『禮記』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우 털로 만든 옷을 한 벌만 가지고도 30년이나 입듯이 검소한 생활을 한다는 뜻이다. K7은 여우꼬리를 잡은 뒤에 큰소리를 치듯이 무슨 일이나 결말을 낸 뒤라야 안심할 수 있다는 뜻이다. K8은 여우는 꼬리가 길기 때문에 물을 건널 때는 젖듯이 범죄도 오래하면 들통이 난다는 뜻이다. K10은 여우는 꼬리가 커야 좋지만 여자는 말이 많으면 못 쓴다는 뜻이다. K11은 여우 가죽은 꼬리가 좋아야 값이 비싸듯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뜻을 나타낸다. J1은 여우가 물을 건널 때 처음에는 물에 젖지 않도록 꼬리를 감아올리지만 나중에는 지쳐서 결국은 꼬리를 물에 적시고 만다는 뜻으로 처음에는 쉽

만 끝이 어렵다는 비유표현이다. J2는 『詩經』에 나오는 말로 여우 모피를 입은 귀족이 예의범절을 모르는 난잡한 행위를 한다는 뜻이다. J3은 『史記』에 나오는 말로 여우의 모피가 오래되어 낡아도 갈색의 개의 모피로 만들 수 없듯이 군자와 소인은 하나가 될 수 없다는 비유표현이다. J4는 여우새끼는 어미와 마찬가지로 얼굴이 희다는 뜻으로 자식은 그 부모를 닮는다는 비유표현이다. J5는 그렇지 않아도 좁은 여우의 얼굴에서 좁은 얼굴의 가족을 얻는다는 뜻으로 가난한 사람에게 물건을 더 빼앗는다는 비유표현이다.

한·일 공통의 속담

K1 여우가족 옷에 양가족 소매를 단 격이다.

J1 狐裘にして羔袖す。(여우모피 옷에 양가족의 소매를 붙임.)

여우가족으로 만든 훌륭한 모피에 어린양 가족으로 만든 저급한 소매를 단다는 뜻으로 전체는 좋지만 어딘가 한군데가 결점이 있다는 비유표현이다.

여우의 신체일부가 소재로 사용된 속담에서는 가족, 꼬리, 얼굴이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났다. 여우의 가족과 꼬리는 오래 전부터 소중하고 귀한 것으로 취급되어 왔는데 양국의 속담에 나타난 여우의 모피는 마찬가지로 소중한 물건으로 인식되고 있다.

3.6 그 외의 비유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K1 사람이 살자면 여우가 돌봐도 돌봐야 산다.

K2 여우가 뒤웅박¹³⁾을 쓰고 삼밭에 온다.

K3 여우 두레박 쓴 것 같다.

K4 여우 뒤웅박 쓰고 삼밭 헤매듯 한다.

K5 여우를 피하니까 범을 만난다.

K6 여우를 피하니까 이리를 만난다.

K7 여우 굴 보고 피물 돈 내쓴다.

13) 쪼개지 않고 꼭지 근처에 구멍만 뚫어 속을 파낸 바가지.

일본 속담

- J1 狐の産屋で參會じゃ。(여우의 산실에서 모임.)
 J2 狐が來れば太郎左がおらぬ。(여우가 왔는데도 수렴사가 없다.)
 J3 狐が下手の射る矢を恐る。(여우가 서툴게 쏜 화살을 두려워한다.)
 J4 狐子を柏葉に包んだよう。(여우새끼를 떡갈나무 잎에 싸 듯하다.)
 J5 狐に灸でこん灸。(여우에게 뜸을 뜨다.)
 J6 狐の嫁入り。(여우 비)
 J7 狐火。(여우 불)
 J8 狐を馬に乗せたよう。(여우를 말 위에 태운 것 같다.)
 J9 狐をもって狸と爲す。(여우를 가리켜 너구리라 한다.)
 J10 四國に狐なく、佐渡に狸なし。(시코쿠에 여우 없고, 사도에 너구리 없다.)

K1은 사람이 살아가자면 누군가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야 잘 살 수 있다는 뜻이다. K2, 3, 4는 두레박이나 뒤웅박을 쓰면 앞이 보이지 않아 두리번거리듯이 몹시 위태로운 상황 또는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모르고 갈팡질팡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말이다. K5, 6은 작은 화를 피하고 나니까 더 큰 화를 만나게 되었다는 뜻으로 일이 풀리지 않고 점점 더 악화된다는 의미이다. K7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을 가지고 너무 서두른다는 뜻이다. J1, 5는 일종의 しゃれ¹⁴⁾로서 J1의 경우 여우새끼의 울음소리가 クワイクワイ라는 소리에 착안하여 産(さん)해서 クワイ 즉 參會(일본어의 옛 표기는 さんくわい)와 같은 동음이의어가 만들어 진 것 같다. 모임에 간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다. J5는 여우울음이 コンコン 하며 울기 때문에 뜸을 나타내는 의미의 灸(きゅう)와 합쳐서 困窮(こんきゅう)라는 동음이의어를 만들고 있다. 즉 생활이 궁핍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J2는 일이나 생각 따위가 서로 맞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J3은 서툰 사람이 쏜 화살은 어디로 날아갈지 모른다는 뜻으로 몹시 두려운 상황을 나타낸다. J4는 부스럭부스럭하고 나는 시끄러운 소리의 상황을 비유하고 있다. J6은 해가 밝게 비추고 있는데도 비가 오는 날씨를 나타내는 말로서 한국에서는 여우가 시집을 가는 날이라고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본 연구의 한국 속담 자료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高橋(2012)¹⁵⁾는 “日本において

14) 주어진 상황에 알맞게 동음이의어 등을 사용하여 우습고 재미있게 말을 엮어 좌중을 웃기는 익살.

15) 高橋正憲(2012) 「日・韓動物メタファーに関する對照研究」 p.38

「狐」は稻荷信仰などからもわかるように、日本の民族性と深い関わりを持っている。「狐嫁入り」という言葉が示す通り、女性的な動物として考えられている。” 이처럼 한일 양국 모두 여우는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J7은 어두운 밤에 산과 들에서 볼 수 있는 괴기한 불빛을 나타내는 말로서 양국 모두 鬼火(도깨비 불)라고도 한다. 이것은 아마 땅 속에 묻혀 있던 사체(동물 또는 인간)의 뼈에서 나오는 인 성분에 의해 불빛으로 비쳐진 것으로 느껴진다. 이 불빛을 보고 여우들이 모여 들기에 여우 불이라는 표현을 쓴 듯하다. J8은 여우를 말 등에 태우면 동요해서 안정감이 없듯이 비틀거리며 안정감이 없다는 비유를 나타낸 표현이다. J9는 지식 내지는 식견이 좁은 사람을 비유한 표현이다. J10은 四國, 특히 阿波(德島縣)는 너구리로 유명해서 여우가 둔갑하는 이야기는 없고, 佐渡(新潟市 서쪽에 있는 일본 최대의 섬)에 사는 그 지방 사람은 오소리는 있어도 너구리는 없다고 하는 표현이다.

한·일 공통의 속담

K1 성 안에 사는 여우요, 사당에 사는 쥐다.

J1 城狐社鼠。(성 안에 사는 여우, 신사 안에 사는 쥐.)

K1과 J1은 중국의 『韓非子』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임금 주위의 간신을 나타내는 말로서 배경을 믿고 온갖 나쁜 짓을 다하는 사람을 비유하는 표현이다.

K2 여우가 범에게 가죽을 빌리라는 격이다.

K3 여우가 범의 등을 빌린다.

J2 狐寅の威を借りる。(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리다.)

K2, 3과 J2는 『戰國策』에 나오는 寓話로서 남의 세력을 악용하여 나쁜 짓을 한다는 뜻이다.

K4 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K5 여우 죽은 데 토끼가 눈물 흘린다.

J3 狐死して兎悲しむ。(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J4 狐烹らるる時は兎これを悲しむ。(여우가 죽으니 토끼가 슬퍼한다.)

K4, 5와 J3, 4는 『宋史』에 나오는 이야기로 여우가 잡히면 같은 산에 사는 토끼도 붙잡히지 않을까하고 걱정하여 슬퍼한다는 뜻으로 동병상련의 의미를 나타낸다.

그 외의 비유에 관련된 속담에서는 양국 모두 중국의 고전에 나타난 속담들이 공통으로 많이 나타났는데, 이들 속담은 의미도 표현 형태도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문화의 영향으로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양국의 국민 속에 융화된 속담이라 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しゃれ를 이용한 표현이나 지명을 사용하여 지역의 특색을 나타낸 속담도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여우를 소재로 한 한일 양국의 속담을 길흥에 관련된 속담, 행동·습성에 관련된 속담, 도술 및 둔갑에 관련된 속담, 간사·교활함에 관련된 속담, 신체 일부에 관련된 속담, 그 외의 비유속담으로 분류하여 대조 분석하였다.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여우에 관련된 속담

	한국 속담	일본 속담	한·일 공통된 의미의 속담
길흥	13 (17.8%)	1 (2.3%)	0
행동 및 습성	15 (20.5%)	10 (23.8 %)	11
도술 및 둔갑	4 (5.4%)	9 (21.4%)	2
간사·교활함	17 (23.2%)	2 (4.7%)	0
신체 일부	12 (16.4%)	6 (14.2%)	2
그 외 비유표현	12 (16.4%)	14 (33.3%)	9
전체속담 수	73	42	24

첫째, 양국 모두 공통적으로 여우의 행동 및 습성에 관련된 속담이 많이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우의 행동 및 습성을 비유적으로 표현하여 사람들에게 경계와 교훈을 주고자하는 점에서 속담의 기능이 잘 나타난 것이라 할 수 있다. 둘째, 한국의 경우 길흉에 관련된 속담과 간사·교활함에 관련된 속담이 일본보다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한국의 경우 여우의 부정적인 면이 인간의 모습에 많이 비유되어 나타난 것이다. 즉, 일본에서의 여우에 대한 이미지보다 한국에서의 여우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지 않다는 것을 속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이는 양국민의 여우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서 각각의 국민성을 엿볼 수 있는 점이기도 하다. 셋째, 여우에 관련된 공통된 속담은 주로 중국의 고전에서 나온 것이 많았다. 이들 속담은 의미도 표현 형태도 모두 일치하는 것으로 이는 중국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중국으로부터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양국의 국민 속에 융화된 속담이라 할 수 있다.

한편, 한·일 양국에 있어 속담 속에 나타난 여우 이미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공통점으로는 첫째, 여우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대부분이다. 둘째, 여우는 간사, 교활하며 도술 내지는 둔갑하여 사람에게 해를 끼친다. 셋째, 여우는 여성을 나타내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다. 넷째, 여우의 모피는 귀한 물품으로 여겨졌다.

차이점으로는 첫째, 한국의 경우, 여우의 울음은 불운(죽음)을 나타내는 반면 일본의 경우, 길운을 나타낸다. 둘째, 한국의 경우, 여우는 여성을 비하하는 비유표현이 많이 나타났으나 일본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셋째, 한국의 경우, 여우의 음식 습성은 썩은 고기와 닭으로 소재가 사용되었으며, 일본의 경우, 유부와 팔밥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는 여우를 소재로 한 한·일 양국 속담의 대조 분석을 통하여 양국 문화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찾아보고자 한 것에 의의가 있다. 양 민족이 지닌 문화적 특성이 속담 속에 잘 반영되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러한 점이 양 언어의 학습자에게 그 문화를 이해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한 이번의 조사에서는 여우를 소재로 한 속담을 중심으로 연구하였으나 앞으로 동물의 소재를 더 넓혀 고찰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종대(2001) 『33가지 동물로 본 우리문화의 상징세계』 다른 세상, pp.277-278
- 김홍겸(2011) 「한중일 여우 이미지의 유사성과 차이」 단국대학교 동양학 연구소 동양학 제50집 p.53
- 송교(2014) 「한·중 고전 문학에 전승된 여우 이야기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p.19-20
- 송재선(1997) 『동물속담사전』 동문선
- 신혜숙(2012) 「日·韓のまつわる妖怪表現研究」 한국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p.48
- 이기문(1997) 『속담사전』 一潮閣
- 임동권(1989) 『韓國民俗文化論』 집문당 p.248
- 정유지(2004) 「한일 동물 관련 속담의 비교 연구; 개와 고양이를 중심으로」 한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미영(2006) 「한·일 양국의 동물속담 비교·분석」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한탁철(1999) 「韓日兩國のことわざ對照比較-動物を素材としたことわざを中心に-」 韓國日本語教育學會 日語教育 第十六輯, pp.73-76
- 大島建彦ら(1982) 『日本を知る事典』 社會思想社 p.598
- 國文學編輯部(1995) 『古典文學動物誌』 學燈社 p.14
- 高橋正憲(2012) 「日·韓動物メタファーに関する對照研究」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38
- 西村在我(1985) 『川柳動物誌』 雄山閣出版 p.35
- <https://detail.chiebukuro.yahoo.co.jp>(검색일:2017.03.23.)

논문 투고 일자 : 2017. 07. 14.
논문 심사 일자 : 2017. 08. 02.
게재 확정 일자 : 2017. 08. 04.

< 要 旨 >

韓 · 日 動物 ことわざ 対照 研究
- 狐 を 素材 と した ことわざ を 中心 に -

韓鐸哲

本研究では狐を素材とした韓日両国のことわざを六つに分類して対照分析した。その結果、一つ目は、両国共通的に狐の行動および習性に係わることわざが多く現れた。二つ目は、韓国は吉凶に係わること、故意的に奸邪・ずるさと関連させたことわざが日本より多く見出された。三つ目は、狐に係わる両国共通のことわざは主に中国の古典から伝わったものが多かった。

一方、両国における狐のイメージのについて調べてみると、共通点としては、狐については否定的なイメージが大部分である。第一に、狐は奸邪・ずるい動物で、化けて人に害を及ぼす。第二に、女性を示す象徴性を持っている。第三に、狐の毛皮は貴重な物品とされた。相違点としては、最初に、韓国は狐の鳴き声は不運(死)を示すが日本は運が良いことを示す。二番目に、韓国は女性を卑下する比喩表現が多く現れたが日本の場合はなかった。三番目に、韓国は、狐の食べ物の習性は腐った肉と鶏が素材として使われたが日本は油揚げと赤飯が使われたということがわかった。

Comparing and Contrasting Korean and Japanese Animal Proverbs
with a Focus on Foxes

Han, Tak-Cheol

In this study, I analyzed Korean and Japanese proverbs about foxes by comparing and contrasting six categories. The findings are the following. Firstly, I found that both countries have many proverbs related to the behavior and habits of foxes. Secondly, the proverbs related to fortune/misfortune are more present than the proverbs pertaining to cunningness in Korea compared to Japan because of the negative image of foxes in Korea. Thirdly, the common proverbs on foxes that both countries share mostly come from the Chinese classics.

Finally,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of fox images in both Korean and Japanese proverbs are summarized. Regarding the similarities, Firstly, the image of foxes is mostly negative. Secondly, foxes are cunning and can harm people by figure-transformation. Thirdly, foxes have a symbolic image of women. And,, Lastly, fox fur is recognized as a valuable goods. First, pertaining to the differences, the sound of fox presents a bad fortune (death) in Korea but a fortune in Japan. Second, Korean proverbs use foxes to look down upon women, but no such proverbs are found in Japan. Third, in Korean proverbs, the food of foxes are rotten meat and chicken; however, in the Japanese proverbs, they are fried tofu and red bean rice.